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3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저희가 바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양지바른 곳에 돌아나는 여린 새싹들이 마치 대지가 주님께 바치는 찬가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고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림으로 기쁨과 생명의 꽃송이를 피워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해 더 많이 비워 가벼워지게 해주시고, 더 많이 닦아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크고 작은 시련의 어둠 속에서도 근원적인 빛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생명의 향기가 풍겨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교 독 문 14. 시편46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27.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다함께

성경봉독 녹6:27-31 김정길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김재흥 목사

생명의 일꾼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사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응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때로는 너무 힘겨워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닦고 싶습니다. 모든 이를 끌어안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앞에 열린 새봄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월 월례회	3월 기도의 밤
선교회별로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이영란 집사

3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고광송 이은옥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이인웅 윤주원 송양진 허정윤 정영선

우리의 할 일

우리 기독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이나? 때로는 중대한 사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자존하기도 하나, 때로는 유해 무익한 폐물인 것 같기도 해서 초조한 심사와 우울한 감회도 없지 않다. 과연 기독 신도로서의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즈음 어떤 성도가 취직하기를 권유받은 데 대한 다음 회답문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하고 적절한 해결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와 보라. 여기 기독 신자의 실물이 하나 있다.

“.....책을 보라시면 볼 것이요, 땅을 파라시면 팔 것이요, 허락되는 것을 되는 때까지는 다하는 것이 일이요, 그것이 막히는 때는 또 천연히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교사를 하게 되면 교단에 있다가 농사를 해야 되겠다면 밭으로 가고, 무직이어야겠다면 도 손을 묶고 앉아 보고, 오라시는 날이면 ‘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일어설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무엇이 이 내 속에 아까운 것이 있는 듯해서, 무엇이 내 손으로 할 만한 것을 못하는 것이 있는 듯 해서 이런가 저런가 고개를 기웃거리는 것이 자신으로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중략) 아무렇게나 헛된 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주님 보시기에 실속 있게 살아야겠는데. 일간의 소감—우리 할 일이 무엇이나? 증거할 것.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땅 끝까지 가서 그의 증인이 되는 것. 사람의 할 일은 이것만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가 사랑이신 것. 예수가 거저말쟁이가 아닐 것을 세상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겠는데 또 그것을 하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무엇을 못 얻은 듯 무엇을 밀지는 듯 여겨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말쟁이요, 험잡꾼이요, 주와 세상 양편에 다 충실치 못한 가장 더럽고 악한 것들입니다. 며칠이 못 가서 썩어서 부모 형제도 가까이 아니하려는 이것을 가지고 왜 아까움 없이 시원하게 빛나게 쓰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

각하고 뉘우칩니다. 일생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도록 형편이 되니 그것이 명하시는 뜻인 줄 믿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시는 날이면 내놓고 일어설 마음의 준비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길로 가라는 것이 반드시 그 명령이신지 아닌지 확연히 알지 못해 그렇지. (중략) 그러므로 명확한 명령이 있기 전에 조금씩 굴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형들이라도 확신되시는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기탄 없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이상으로 한다면 제(弟)는 신앙에 의한 촌속 교육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한 번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로는 주님이 제게 명하시는 것은 우선 독립인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독립, 생활로 독립, 사업으로 독립, 다른 사람을 의뢰하여 하늘까지 가는 일이 있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독립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것을 위하여 버리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아이구, 무서운 말을 또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월급으로 유인하려던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다. 저에게 혹은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 해야 할 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나 모든 사업보다도 신종(信從: 신앙을 따르는 것)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사업이다. (1939년 7월, 김교신)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멋진 여름과 풍요로운 수확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의 상상일 뿐, 진정한 희망은 그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꿈, 기대, 상상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언서 3

-김사인

나는 그대 눈부신 이름 부르지 못합니다
몸 더러워지고 냇마져 바스러져
외마디 비명도 이제 내 것 아닙니다
부르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참담한 흔들림 사이에
그대 서늘한 눈매 깃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르튼 발과 깨진 무릎
어루만져주실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후 1시 30분부터 각 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 **청년부** :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3. **기도의 밤** : 7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4. **입학** : 각급 학교에 입학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5. **웨슬리 설교** : 3월 15일부터 강독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전(10시 30분) 과 저녁 시간(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6. **별세** : 박옥겸 성도(김윤수 집사 부군)께서 지난 2월 27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7. **종묘급식봉사** : 이번 달 종묘급식봉사는 22일(목요일)로 변경합니다. 봉사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주차**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교회 마당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당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토요봉사(10일): 박애순 홍복선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김지윤(생일) 김중수(감사)

하현철 최성애 (결혼기념일) 오진훈(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